YS, X세대의 대통령

송병형의 판생각

X세대라 불렸던 우리에게 YS는 첫 대통령이었다. 정확히는 투표권을 가진 뒤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이었다. YS 집권기에 우리는 한국사회의 오랜 이념적 속박에서 벗어났다. 사회적 권위에 연연하지 않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다. 사회보다는 개인의 문제에 천착했고 개성을 당연시했다. 선배들은 우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대"라며 X세대라고 불렀다. 이전 세대에게 우리는 문화적 단절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파격적인 X세대의 등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개인적으로 YS가 문민시대를 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서거한 YS를 X세대의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다.

문민정부 시절 대학 캠퍼스의 공기는 가벼웠다. 선배들이 한국사회의 모순을 이야기했지만 절박함은 없었다. 모순에 대한 개혁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이다. YS는 집권하자마자 3당합당의 충격만큼이나 강렬한 개혁들을 쏟아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고, 감히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겼던 하나회가 날아갔다. 다른 기득권 집단도 예외가 아니었다. YS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했고, 금융실명제로 강남부자들의 손발을 묶었다. 우리는 과거의 권위가 '가짜 권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때 목도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권위도 언젠가 실체가 드러날 거라 짐작했다. 더 이상 권위는 우리를 속박하지 못했다.

우리는 사실상 모든 권위에 저항했다. 교수들과 선배들의 일방적인 가르침에 의심을 품었고 검증하려고 했다. 지성인 냄새를 풍기는 고급문화보다는 모두가 즐기는 대중문화에 흠뻑 빠졌다. 우리는 전통적인 엘리트가 아닌 새로운 엘리트가 되고 싶었다. 우리가 권위라는 거품이 빠진 엘리트에 열광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오렌지족 의사가 등장하는 미니시리즈 드라마가 인기를 구가했고, 대학가에서는 의대생들이 의사의 권위를 풍자하는 티셔츠를 맞춰 입었다. 캐나다인 의사 '노먼 베쑨'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 '배째'라는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다. 티셔츠를 입은 대학 후배의 설명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수술도구를 환자 몸에 넣은 채 봉합하는 의사들의 실수를 풍자했다는 것이다. 우리 세대에서 권위는 이렇게 해체돼 갔다.

YS 시대는 국가라는 마지막 권위가 해체되며 막을 내렸다. 1997년말 갑작스런 구제금융 사태는 국가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존재라는 굳은 믿음을 무너뜨렸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때만큼은 초연할 수 없었다. 혹독한 시절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탓에 구제금융 사태는 한순간에 우리 세대를 좌절시켰다. 우리는 졸업을 미루거나 아니면 의미도 없는 대학원에 진학해 유예기간을 벌어야 했다. 그러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취업장수생이 늘어갔다. YS의 시대는 X세대에게 큰 고통을 마지막 선물로 남겼다.

YS 시대를 돌이켜보면 이것만이 고통은 아니었다. 1993년 9월 지존파의 막장 살인극, 1993년 10월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고통스런 사건들이 꼭 YS 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랫동안 쌓인 적폐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구제금융 사태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YS 시대가 X세대에게 어둠보다 빛이었다고 회고하는 이유다. /bhsong@

社說

김 前대통령의 정신은 남아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큰 별이 졌다. 평생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취에 앞장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결국 하늘의 부름을 받고 떠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만 25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돼 9선까지 지냈다. 최연소 당선과 9선의 기록은 우리 의정사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역사의 고비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민주화의 대의에 몸바쳤다는 것이다.

'YS"라는 애칭으로 통하던 김 전 대통령은 1969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개헌 계획에 반대한 이후 언제나 집권세력의 독재에 맞서왔다. 엄혹한 유신시절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맞서다 헌정사상 유일무이하게 의원직 제명까지 당하면서 유신체제 종언의 도화선을 만들었다.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 치하에서 민주화운동의 횃불을 당긴 것도 김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23일간의 단식투쟁이었고, 5공정권의 서슬퍼런 칼끝을 무디게 한 것도 그의 굽힐 줄 모르는 민주화 투쟁의지였다. 그것은 마침내 1987년 6월항쟁과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 하나회를 제거하고 금융실명제 등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실행했다. 특히 하나회 제거는 이 나라에서 군사쿠데타의 망령을 영원히 걷어낸 불멸의 쾌거였다. 과오도 있었다. 아들이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고, 무리하게 고속성장을 추구하다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그렇지만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를 통해 수용했다. 아들이 구속됐을 때도 주저없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언제나 대도를 지켰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우뚝서게 된 것은 그의 결단과 한결같은 헌신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굳은 신념과 의지로 민주주의 쟁취에 앞장서 온 김 전 대통령도 생노병사의 필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마침내 이승과 작별했다. 그의 몸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그의 정신은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행복의 섬'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민주화 거목' YS 빈소에 각계각층 조문행렬

여야 지도부·전직 대통령 등
빈소 찾아 유족위로·애도 표해
일반인 등 수천명 넘게 발걸음

새누리당 김무성(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 조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 장례식장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정계 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 사람들의 발길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여야 지도부와 전직 대통령 등을 포함한 굵직한 정관계 인사들은 22일 오전 침통한 분위기가 흐르는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의원 등은 차남 김현철 씨와 함께 상주 역할을 자처했다. 또 '3김 시대'를 함께 향유했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오전 일찍 빈소를 찾았다.

황교안 국무총리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은 이날 낮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의 장례일정 등을 확정한 뒤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도 빈소를 찾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의 행렬도 계속됐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격려했다.

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으로 김 전 대통령을 모셨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빈소로 전화를 걸어 유족들을 위로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안기부 예산을 선거에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 재판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과 멀어진 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도 빈소를 찾아 '정치적 스승'의 영면을 기원했다.

이수성 전 총리, 김용준 전 헌재소장, 이해구 전 내무장관,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 김정수 전 보건사회부 장관, 권영해 전 안기부장, 정종욱 전 주중대사, 김진호 전 합참의장, 도일규 전 육참총장,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 문민정부 당시 각료와 고위직 인사들도 줄지어 빈소를 찾았다.

이날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오후 8시 기준 3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미란 기자 actor@

누구도 웃지 못하는 면세 사업자 선정

기자 수첩

김 성 현 〈유통부〉

2013년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사업자는 5년마다 면세점 특허를 갱신해야 한다.

당초 면세 사업이 재벌들만의 특권이라는 비판으로 개정된 법이지만 최고의 수혜자는 면세사업권을 따낸 기업이 아닌 정부였다.

한정된 사업권을 두고 대기업 간의 과잉경쟁이 펼쳐졌고 면세점 유치를 위해 장밋빛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면세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다. 관세청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승자와 패자를 발표한다.

패자는 투자금을 잃고 승자는 잠시의 기쁨과 곧 다가올 불안감을 동시에 느껴야 한다. 5년간 면세점 조성과 운영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5년 후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또 유치하기 위해 투자된 자금도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로 이어진다.

가뜩이나 포화상태로 과잉경쟁이 펼쳐지는 유통업계에 면세점 허가제는 각 기업에게 기회라기 보다 부담이다.

중소상인들은 그저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를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과 같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면세점을 운영해 누구나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개정안이 오히려 대기업 간의 경쟁만 심화시킬 뿐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는 더 좁아졌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 근무 직원들은 5년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 노동계는 매번 면세점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기존 직원들이 해직과 이직을 경험해야 한다며 대책도 없이 관세법을 개정했다고 비난했다.

최근 업계는 롯데의 잠실 수성 실패도 사실상 명확한 심사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정부의 친일 꼬리표 떼기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면세사업자 선정 자체를 정부가 좋아하는 기업 밀어주기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다.

누구도 웃지 못하는 면세 사업자 선정. 경제민주화를 위해 개정된 이 관세법이 정부의 무기가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minus@

김영삼 前대통령 사인 '심부전증' 예방법

소비자119

염분 많은 국·찌개 등 피하고
하루 소금 섭취는 3g 이하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사인으로 지목된 폐혈증과 심부전증의 예방과 치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폐혈증은 폐렴 예방접종으로 미리 대처할 수 있으니 차치하자. 그러나 심부전증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식단만 바꿔도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

심부전증은 심장이 약해져 펌프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숨이 차는 증상으로 대표된다. 몸이 붓거나 피로감이 쉽게 나타나기도 한다.

심부전증을 예방하려면 식단 관리가 필수다.

염분이 많은 국이나 찌개, 라면 등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하루 소금섭취는 3g이하로 줄여야 한다. 염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으로 싱겁다고 느끼는 정도면 3g이내로 염분섭취를 줄였다고 볼 수 있다. 금연과 금주를 통한 식습관 개선도 요구된다. 조리법도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심부전증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 해도 튀긴 요리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뤽 쥐세 박사는 튀긴 음식을 먹는 빈도가 잦을수록 심부전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고단백 식품인 계란과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의 소비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현미 등 섬유질이 많은 곡물 섭취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과일과 야채에 많이 포함된 비타민C를 충분히 먹는 것도 좋다.

고혈압과 당뇨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한다. 등산과 같이 숨이 차는 운동을 피하되 일주일에 세네차례 가볍게 걷는 정도의 운동도 도움이 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인사

◇미래창조과학부(과장급 전보) ▲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이충원 ▲ 과학기술전략과장 이준배 ▲ 정보화기획과장 이재형 ▲ 정보활용지원팀장 신승한 ▲ 전파방송관리과장 권병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추진단 파견 홍승호

부고

▲ 정숙희씨 별세, 전태성(로타리클럽 3700지구 총재)씨 부인상, 원희(경산1대학 교수)·은석(이인한의원장)·병준(중앙대 교수)·용준(금강파워텍 부사장)씨 모친상, 서무교(동국대 경주병원 피부과 과장)씨 장모상 = 22일 오전 6시 10분,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24일 오전 8시, 053-620-4241

▲ 전서영씨 별세, 강재현(전 경남변호사회장)·강기현(한국전기공사협회 처장)·강수선·강경효·강윤미씨 모친상 = 22일 삼성창원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055-290-5651, 010-3868-5194

▲ 최경애씨 별세, 권병직(한국자산관리공사 대외협력위원)씨 부인상 = 22일 오전 5시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 02-3410-315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송필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